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1)]

김 지 현(서울대학교)
신 의 항(전 서울대학교)

1. 자유교육 이념과 학사과정

<이념>

하버드의 학부교육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을 지향한다. 자유교육적 전통은 미국 유수의 연구중심대학교의 학부 교육의 일반적 경향이지만 하버드처럼 그 가치를 학부과정의 전면적인 이념으로 내세우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Harvard, 2007, Yale, 2009). 하버드 대학이 내세우는 '자유교육'의 이념은 최근 2007년에 교양교육 혁신위원회(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가 교양교육과정안에서 제출한 대개 다음과 같은 문구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이다. 자유교육이란 시국적, 지엽적 주제의 타당성이나 직업적 유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로운 탐구정신으로 실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유교육은 인간과 자연세계에 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그것은 학생들의 신념과 선택에 대해서 보다 성찰적이게 하며, 그들의 전제와 동기부여에 관해서 보다 비판적이게 하며, 문제해결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주위세계에 관해서 보다 통찰력 있게 하며, 그들의 생활에 개인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쟁점들에 관해서 자신들이 더 능력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자유교육의 목적은 추정을 뒤흔들어 놓고,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외양의 저변과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키며 그들이 스스로 방향감각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설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자기성찰을 유발하고, 비판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역사적 계기와 문화적 형성과의 만남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다. [2)]

하버드는 이러한 자유교육을 대학 학부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삼는다. 전문대학원이나 직장, 대부분의 일반대학원 과정은 학생들을 '탈자유화(deliberate)'하며 학생들을 전문직업인으로서만 사고하게 훈련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대학의 학부과정만이 사람이 평생동안 당면하게 될 시간과 노력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이자 공간이라는 것이다. 순수학문(liberal arts and sciences)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실현되는 자유교육은 경력이나 전문직으로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양성해 준다'는 것이다.[3)]

하버드의 학부교육은 '학문적 경험(academic experience)', 학생들 동아리 활동 등으로 진행되는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 그리고 '기숙사생활(residential experience)'을

---

1) 김지현.신의항(2015) ' 대학 학부교육의 실제' 교육과학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2) Harvard University. 2007. 2.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p. 1
3) Ibid, p.2

통해서 이루어 진다. 이 가운데 '학문적 경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학문적 경험은 '전공(concentration)', '일반선택(electives)',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전공'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심도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선택' 과목들은 학생들이 전공 이외의 교과목들을 폭넓게 탐색하도록 해준다.

하버드대학은 하버드대학교의 단일 학부교육기구로서 모든 학부생들은 하버드대학에 소속하고 학과의 분할 없이 학사프로그램(academic program)을 따라 학사과정을 이수한다. 학사과정은 총 16개의 풀코스(full course)를 이수하면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풀코스는 1년 단위의 교육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강의를 말하므로 1학기 단위의 강의,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3-4학점 강의로 보면, 총 32강좌 약 128학점 정도를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 요건>

- 학위종류 : Bachelor of Arts 또는 Bachelor of Science 학위
- 취득 이수원칙: 16.0 개의 '풀코스(full course)' 이수. (8*16=128학점 정도 됨)
- 강의종류: 강의는 1년 동안 진행되는 'full course'와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half course'로 나뉨. half course는 4 credit 정도(일주일 3시간 강의 15회 정도)
- 성적기준: 풀코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C- 성적을 획득하거나, 또는 적어도 10.5 개의 풀코스에서 C-보다 높은 성적을 획득. 등급평가(non-letter grade)가 아니면서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신입생 세미나, 일부 개별지도과목(tutorial course)에의 '만족(SAT)' 받은 교과목과 1년 단위 senior tutorial course
- 이수시기: 10.5 개의 풀코스 가운데 6개 풀코스는 2학년이 되기 전까지 이수해야함(약 48학점). 신입생과 2학년생은 매 학기 3 개 이상의 '하프코스(half course)'를 수강해야만 함.

<교양필수요건>

학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총 학점취득 필수조건 외에도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버드 대학 학부과정 필수과목들은 하버드 대학이 학부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4]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학문적 글쓰기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 교과과정의 모든 영역을 아울러 학문적 탐구의 제반 형식과 가치들을 점검해보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고의 방법들에 스스로를 노출하여 보는 것
- 서로 다른 문화에 노출되고 이와 더불어 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 수량적 자료를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형성하는 것

4) Freshman Dean's Office: Academics 중 curriculum overview 내용임
http://www.fdo.fas.harvard.edu/icb/icb.do?keyword=k3806&tabgroupid=icb.tabgroup12776

- 하나의 학문영역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함으로써 깊이 있고 동시에 폭이 넓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필수이수 교과과정이 정해지는데, 전공필수이수(concentration requirement), 글쓰기 필수이수(writing requirement), 외국어 필수이수(foreign language requirement), 그리고 기숙체류필수(residential requirement)와 해외 학습(study abroad)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양필수(general education requirement)'를 충족해야 한다.

- Expository Writing (Expository Writing 20): 분석적인 글쓰기를 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
- 8개의 새교양 과정 교과목
- 1 년 간의 외국어 과정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 입학 당시 배치고사 성적 등을 통하여 유창함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
- 전공필수

2. 교양교육

(1) 교양교육의 변화

하버드 대학의 교양과정은 미국 내의 대학은 물론 전 세계의 대학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발전의 역사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다. 하버드 대학은 최근 '교양교육의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1979년부터 30년간 유지해 오던 소극적 영역별 분배이수형의 단일 학문중심의 '핵심교양 커리큘럼(core curriculum)' 중심의 교양교육체계를 해체하고 '융복합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학제적 교양과정인 '새 교양교육(New General Education)'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5)]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다. 최초 단계에서는 1949년 '자유사회에서의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을 제안하는 'Red Book'에 따라 학부 교양교육과정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위기에 몰려 있던 하버드를 세계적인 대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엘리엇(Charles William Eliot) 총장은 '강독(recitation)'을 '강의(lecture)'와 '세미나(seminar)'로 바꾸고 학부과정에 '선택 과목제(Elective System)'를 도입하면서 확대 개설하였다.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대규모 대학들이 하버드 형태대로 '선택과목제'를 채택하였던 것만 보아도 하버드 대학 학부과정의 미국 내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제'가 엘리엇 총장의 후임인 로웰(Lawrence) 총장에 의해서 학생들의 열의를 구조적으로 빼앗아 가는 시스템으로 거세게 비판을 받으면서 하버드 교양과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즉, 교과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만으로는 학생들이 이수요건을 쉽게 만족시키는 과목에 몰려들고 배움의 열의를 잃게 되는 현상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모양이다. 이후 로웰 총장은 '선택과목제'를 폐기하고 미국식 교

5) Harvard's curriculum review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fas.harvard.edu/curriculum-review/ 참조

양과정에 또 다른 커다란 영향을 미친 '집중필수(Concentration requirements - Major라고 흔히 불리는 것)와 분배필수(Distribution requirements)'의 체제를 도입한다.[6] '공유된 지식 체계의 원리(principle of a shared body of knowledge)'에 따라 한 세대가 배워야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교과목을 체계화하고 영역별로 반드시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분배필수이수 방식을 취했다.

학부의 규모가 커지고 1970년대에 와서 점차 더 전공으로 세분화되는데 '단지 폭넓은 교양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고전(cannon)'의 통독이나 특정 지식의 습득, 일부 분야의 최신 지식 전달을 지적 소양이라고 보는 접근을 버리게 된다[7] 그리고 1978년부터 학생들에게 '학문의 방법론과 기본 질문' 등을 학생들이 익히는 '지식에 대한 접근(Approaches to knowledge)'을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핵심교양(Core Curriculum)'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외국 문화', '도덕적 추론', '역사 연구', '문학과 예술'을 비롯해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물학 분야는 학문의 제 영역 총 열 한 개 분야에서 전공과 관련이 먼 영역에서 교과목 일곱 개를 필수로 선택 수강하게 되었다. 핵심교양 중심체제는 이후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해오며[8] 미국의 대학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교양교육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핵심교양체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와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전문화된 각 학과 교과목이 핵심교양에 포함되었고 앎에 대한 주요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본연의 목표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Hejtmanek, 2010). 또한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교양체제는 이후 너무 복잡해지고 2000년대 이후 9•11사태 등 미국이 맞이하는 사회와 세계의 변화와 대응에 적절하지 못한다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오랜 평가과정을 거쳐[9], 2009년도 신입생부터 '새 교양교육(A New Program of General Education)'체제로 대체되었다.[10] 새 교양교육 체계는 대학 자유교육과 교양교육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명시로부터 출발하여 '학제성'을 교양과정의 구성 원리로 불러들이고 다학문성의 수용으로부터 융합과 통합, 비교와 병치 등 다양한 학문의 간섭과 영향을

---

6) Morison, 384-6, 445-8; Jerome Karabel, The Chosen: The Hidden History of Admission and Exclusion at Harvard, Yale, and Princet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2005), 39-52 ; Samuel Eliot Morrison,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2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384

7) 하버드대학 2008 Student Handbook

8) 1997년 '수량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는 변화만 있었을 뿐이다

9) 교양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우선 하버드대학의 학부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수, 대학행정담당자, 학부생들로 구성된 대학 교과과정 개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2004년 4월 '하버드학부교과과정평가보고서(Report on the Harvard College Curricular Review)'에서 학부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지적된 문제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교양교육', '과학과 기술 교육', '글쓰기와 말하기', '국제경험', '겨울학기', '교육방법', '학사지도와 상담', '전공'의 하위 분과에서 구체화시킨 보고서들이 2006년 1월 8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 교양하위분과는 교양교육 타스크포스(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로 연계되어 약 4년 동안 하버드 교양과정의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행하여 Prelimina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전 교수들과 학생 등 하버드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양교육 타스크포스는 2007년 2월에 하버드의 Faculty of Arts and Sciences에 학부생의 교양교육과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는 2007년 5월 15일 하버드 교수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10) 최근 하버드 대학뿐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대학의 학부 교육체제에 대한 검토연구를 시행하고 일련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예일대학교는 교양교과과정은 '기본기술'과 '분배필수'로 나누었다(Yale, 2003). 브라운 대학도 그들의 open curriculum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변화를 꾀하였다(Brown, 2008).

교양과정의 중심에 두는 '적극적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으로의 큰 흐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하버드 대학이 추구하는 새 교양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목적과 교양교과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2) 새 교양교육과정(New General Education)의 특징과 구조

1) 교양교육의 목적: 대학 자유교육과 삶의 연계

새 교양교육은 자유교육을 지향하는 학부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틀 안에서 고유의 위상과 역할,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내에서 존재한다.

> 전공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심도 있게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과목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주된 학문적 관심의 초점 이외의 교과목들을 폭넓게 탐색하도록 해준다. 이 두 영역의 교과목들은 '자유교육의 정신' 아래 만들어 진 것이다. [11] … (교양교육은) 여타의 다른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연속선상에 있다…그러나 그것은 뚜렷하게 대조되는 방식으로 가르쳐져야만 하고 그렇게 차별화되는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우리가 문리분야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떻게 그들 각각의 삶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세계와 관계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되는 바로 그러한 장이어야 한다. 교양교육은 '자유교육의 공적인 양상(the public face of liberal education)'이다. [12]

대학 교양교육은 '대학의 학문을 삶과 연계하는 것', '자유교육의 공적인 측면'을 지향한다는 고유성을 가진다. '교양교육'은 '전공'과 '일반선택'과 더불어 학문적 경험을 만드는 세 하위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이 둘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공통의 자유교육을 추구하지만 분명한 차별화된 위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고유한 목적은 전통적으로 자유교육이 '전문적 직업교육(professional education)'에 비추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서 '무용함'과 동일시되어 왔다.[13] 그러나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자유교육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 자유교육은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부생들이 학습하는 주제와 그 과정에서 습득하는 기술과 마음의 습관(skills and habits of mind)은 학교를 떠난 후 그들의 삶을 형성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 혹은 다른 국가의 시민으로 타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인구학적, 기술적 그리고 지구상 변화의 세력에 참여할 것이다. 그들은 경험적인 도구를 평가하고, 문화적 표현을 해석하며, 그들 개인과 직업생활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자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정보에 근거한 그리고 사려 깊은(informed and thoughtful)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11) 2006 LF preliminary report
12) Harvard Magazine "Toward Top-Tier Teaching," page 63. 재인용
13) 하버드 파우스트 총장이 취임식에서 인용한 De Bois의 주장, "대학은 인간을 목수로 만드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목수를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다"은 자유교육이 가지는 '무용성'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자유교육이 제공하는 역사적, 이론적, 그리고 상관적 시각(historical, theoretic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은 학생들이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몽과 능력(enlightenment and empowerment)의 근원이 될 수 있다. [14]

자유교육은 직업훈련이 주는 유용성과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진다. 즉, 삶의 다원적인 제 상황에서 '자유교육적 태도와 능력을 제공한다. 학생의 삶은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유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의미가 있으며 교양교육은 곧 이러한 자유교육의 유용성이 대학 밖이나 대학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삶과 학문을 연계 지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며 '학문과 삶의 연계'라는 교양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15] 하버드의 학부교육에서 '자유교육의 유용성'을 보장하는 것, 즉 우연에 맡겼던 '자유교육의 유용성'을 필연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교양교육에 부여한다. 하버드의 새 교양교육은 삶 속에서 자유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유용성의 부분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대학 내 학부교육의 경험으로 초대함으로써 자유교육의 힘을 '대학 밖의 삶'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내의 자유교육적 삶을 시간적, 공간적, 차원적으로 확대, 확장, 침투하는 것을 '필연적'인 대학 교육적 경험의 틀로 포함하고 이를 담당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적이 된다. 구체적인 하버드의 새 교양교육의 목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교양과정은 네 가지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들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특정한 학과나 학문영역에 제한되는 지식으로 이루어져있지는 않다. 첫째, 교양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화된 사회에서 민주적 시민이 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양과정은 학생들 스스로가 예술과 사상, 그리고 가치적 전통의 산물인 동시에 그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교양과정은 학생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 넷째,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가지는 윤리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하버드의 새로운 교양교육 혁신의 관점에 의하면 '교양과정'은 전체 학부 교육과 통합성을 가지면서도 분명히 대조되고 차별되는 목적을 가진다. 교양교육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순수학문'의 자유교육적 측면이 대학 밖의 삶, 대학 이후의 삶과 '연계'되어 그 유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의 한 축인 것이다.[16] 이를 하버드는 '자유교육이 가지는 공적인 측면'으로서 교양교육이 '학문과 삶의 연계를 이루어 내는 것'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필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일'을 대학교육의 한 축, 즉 교양과정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

14) Ibid p.1-2

15) New General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generaleducation.fas.harvard.edu (2011년 4월 20일 접속)

16) 하버드는 교양과정의 목적 정립을 위하여 학부생들의 실제 진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의 4%이하만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장래진로로 생각하고 있고, 졸업예정자의 5% 만이 졸업 후에 박사과정을 '인문사회자연과학-순수학문'영역에서 취득하기를 원한다. 18%는 언젠가 박사과정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반면 30%의 신입생들이 외과 의사나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학년에는 53%의 학생이 사업, 의학, 법률 분야의 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유교육적 삶' 만을 사는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과과정을 구성해서 운영했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2)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구성과 운영

(a) 기본 접근: 학문을 학생의 삶으로 초대하기

일상의 삶은 단일 학문 차원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다원성을 가지는 사태와 실제 안에서 전개된다. 다양한 자유교육적 조망이 실제로 작용하는 다학문적이고 융합적이고 실천적이며 다원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하버드 새 교양교육과정은 자유교육이 삶에서 살아가는 '학생'이라는 인간주체에게서 작용하는 양식을 대학 안으로 불러들여 교과과정 안에서 그러한 다원적 융합적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곧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대학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학문으로 학생을 데려오기'로부터 교양교육은 '학생의 삶으로 학문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중심이 역전시키고 있다.

>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명확한 형태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아이비담장 너머로, 그리고 대학생활 이후에까지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양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자료들은 다른 교육과정과 연속선상에 있지만 접근방법은 매우 다르다. 이 교육과정들은 '학생들을 학문으로 데리고 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학생들의 삶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새 교양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전체 대학교에 걸쳐서 다루는 교과주제들(subject matters)과 능력들(skills)로 안내하는데 곧 자유학문들(the arts and sciences)들을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면하게 되고 그들이 이끌어 가게 될 21세기의 세계와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17]

학문하는 것을 학교 밖이나 대학 이후에도 그러한 태도와 능력, 지식과 기술을 영향력 있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새교양교육의 역할이 됨에 따라 새교양교과과정은 삶의 제 국면, 생활 등에서 학문이 작용하는 방식, 학문을 탐구하는 자유교육적 태도를 그대로 확장하여 살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학문, 삶을 조망하는 다양한 학문, 실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안에서 만들고 학문의 관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 능력을 발전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학문과 삶의 연계'를 위한 새 교양교육은 '학생들의 일상 삶을 중심에 놓고 학문을 여기에 초대하는 사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교양 교과과정이 '학제적'이며 '융복합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삶 속에서의 학문적 기여를 고민하는 새 교양교육은 학제성을 지향할 수밖에 없음을 하버드 대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학문과 삶의 연계'라는 목적 자체가 학문을 단위로 제시되지 않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어느 학문이나 지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학제적'으로 혹은 '초학과적으로'이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8]

---

17) http://www.generaleducation.fas.harvard.edu/icb/icb.do

18)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2007.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pp. 1-23.

삶은 그 자체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실체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복합적,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다루는 내용과 주제 또한 '학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출발한다. 강의의 주제는 '학문적 개념',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 언어, 일상적 용어와 주제, 관심, 가치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교양교과과정은 다양한 학문을 초대함과 동시에 이론 그 자체의 제시보다는 '이론의 적용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이에 더하여 교양교육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학과단위의 단절이나 대학 내로 국한되는 제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생들의 배움과 교수들의 가르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19]

(b) 영역구성과 교과목

가. 교과과정 하위영역[20]

학제성의 핵심은 삶의 제 영역, 생활세계의 단위적 선택이다. 학문을 분배필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경우, 강의주제와 제목은 학문의 탐구영역, 개념,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반면 학제적 접근은 '삶'의 단위를 지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버드의 새 교양교과과정은 학문분야가 아니라, '삶의 단위'로 영역을 분할하는데, '미학적/해석적 이해**(aesthetic and interpretive understanding)**', '문화와 신앙**(Culture and Belief)**', '경험적/수학적 추론**(Empirical and Mathematical Reasoning)**', '윤리적 추론**(Ethical Reasoning)**', '생명체계의 과학**(Science of Living Systems)**', '물리적 세계의 과학**(Science of the Physical Universe)**', '세계의 사회**(Societies of the World)**', '미국속의 사회**(United States in the World)**' 이다. 영역의 구성에서 주목할 것으로 '미학적 해석적 이해' 는 역사에 대한 고려의 폭을 확보하고 문화 간의 비교를 하거나 몇 가지 미디어를 하나의 교과목에서 다룸으로써 이전의 텍스트/시각음악/문화적 접근방식을 하나로 통합한 것과 핵심교양 '외국문화' 부분이 '세계 속의 사회(societies of the world)'와 '문화와 신앙(culture and belief)' 두 개의 영역으로 분화된 것, 핵심교양에서 두 분야영역으로 되어있던 '역사연구(historical Studies)'가 없어지고 보완책으로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하여 다루는' 교과목들을 학생들이 필수로 하나씩 이수하도록" 하고 과학영역도 과학의 역사를 다루도록 한 점, 그리고 "핵심교양의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이 '이론적인 것'에 제한되었던 데 반해 윤리적 추론이 '응용된 윤리(applied ethics)'에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이 큰 차이다"[21]

이 때 새로운 범주들은 과거의 핵심교양의 경우보다 그 영역간의 경계가 훨씬 유연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새 교양과정에서 영역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경

---

http://www.fas.harvard.edu/home/news_and_events/releases/genel_02072007.html (2007.9.21.)

19) http://my.harvard.edu/icb/icb.do?keyword=core

20) 2007. 2. final 보고서 pp. 6-18, 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37826&tabgroupid=icb.tabgroup49198 참조

21) (Dean of undergraduate education Jay M. Harris, Wolfson professor of Jewish studies, who taught "If There Is No God, All Is Permitted: Theism and Moral Reasoning" under the Core.) Harvard Magazine 2009년도 1,2월호 기사 중 재인용

계와 분할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핵심교양 교과과정에서 “교수들은 자신들의 ‘학문’을 ‘비전공자’들 전공으로부터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새교양교과과정은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속 학과로부터 밖으로 나와 모험을 하며, ‘통학문적 접근(cross disciplinary approach)'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의 새로운 교양교과과정 하위 영역의 목적과 교과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명	목적 및 개요	교과목 필수사항
▣ 1:미학적/해석적 이해	문학과 종교적 텍스트, 그림, 조각, 건축, 음악, 영화, 춤, 장식예술 등의 연구를 통해 심미적 반응성(responsiveness)과 문화적 표현의 형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킴. 이론적 틀에서 미술 및 문학 작품과 사상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에 지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움.	-비판적 기술, 즉 심미적 감수성과 해석적 능력의 발달 -언어와 언어적 구조, 다양한 매체들로 이루어진 기본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문어적, 청각적, 시각적, 동작적 형식을 이해하는 능력 - 비평이론, 미학, 예술철학, 수사학, 언어와 의미이론, 지각이론 맥락 속에서 이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 -전시회, 공연, 낭독회 등을 방문함으로써 강의실 밖에서의 적절한 경험을 하도록 하며 공연자나 감독, 큐레이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창작활동 하도록 함.
▣ 2:문화와 신앙	예술작품 및 사상이 형성되는데 문화권 내외에서 작용한 사회, 정치, 종교, 경제, 역사적 조건 형성의 방식에 대해 이해, 평가하는 능력의 발달 문화와 신앙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이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문화적 주제를 강의소재로 삼음	- 인간사회의 문화와 신앙의 전통에 대하여 이해하고 감식하는 능력의 발달 - 일차적 텍스트와 이차적 텍스트, 매체와 사회역사, 민속지 등을 소개하기 - 여러 작품을 각각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종교, 여러 문화나 개별 문화의 생산과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의 개발 -종교와 신앙의 전통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 분석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들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서로 연결시키기
▣ 3:경험적/수학적 추론	추론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 및 이론적 도구 체득. 추상적 원리와 이론을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킴. 자료와 증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사결정, 추론 및 증거기반하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배움 추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일반적인 위험을 피하는 방법 체득	-통계학, 확률이론, 수학, 논리학, 결정이론과 같이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적 이론적 도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함 -이러한 도구들을 포괄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기회 제공 -가능하면 추론이나 문제풀이과정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전형적인 실수와 오류들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 4:윤리적 추론	윤리적 및 정치적 신념과 실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방식으로 추론하는 법 고찰, 윤리적 주제들에 대해 고려하고 주장을 평가하기. 좋은 삶, 의무, 권리, 정의, 자유 등의 윤리적 개념에 관한 이론 평가. 윤리적 딜레마 해결하는데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춤. 자신과 다른 가치 체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학생 자신의 윤리적 가정에 주의요청토록 함.	- 가능하면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는 다른 것을 제시하는 다른 종교, 시대, 다른 언어, 도덕적 삶에 대하여 알도록 함
▣ 5:생명체계의 과학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핵심적인 개념 및 사실, 이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 생명의 기원, 환경에의 적응, 인간의 영향 등 생명의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 과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능력, 경험적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생각하는 능력, 결과의 애매함을 평가하는 능력형성. 생명 체계에 대한 실험을 참관.	- 생명체계의 개념 등 이해하기 - 실험실경험 통하여 실험의 본질 이해하기 -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실제 관심 주제들과 연결시키기 - 과학적 업적과 활동의 역사, 철학, 맥락, 기관 등에 대하여 토론해 보기
▣ 6:물리세계의과학	물리학 및 물리공학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 사실, 이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화석연료, 우주탐사,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 사생활보호 등 전 세계 사회에 영향을 미친 물리학에서의 발견과 발명, 개념들을 고찰. 과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능력, 경험적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생각하는 능력, 결과의 애매함을 평가하는 능력 형성.	- 주요 개념의 소개 - 실제 실험실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물리과학과 공학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가르침. - 관심있는 문제와 관련된 이론, 개념 등을 연결시키기 - 과학적 업적과 활동의 역사, 철학, 맥락과 기관들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음
▣ 7: 세계의 사회	자신과 다른 가치, 관습, 제도를 배우면서 국제적 관점을 기르며, 어떻게 서로 다른 신념, 행동,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들이 전수되는지 이해. 한 사회나 지역, 혹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재화나 상품, 사람, 자원, 정보, 사상 등의 교류 및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주제를 다룸. 다양한 학제간 접근을 취할 것이며, 현재적 관점이나 역사적 관점을 취해 각 주제를 다룸. 인간이 자신의 사회를 형성해온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킴.	- 미국이외의 한 개 이상의 사회에 대한 검토 - 사회들 간의 관계, 혹은 한 사회의 역사적 시대들의 관계 예시 - 주어진 강의 자료와 세계적 맥락 속에서 학생이 당면할 수 있는 주제들과 관계 설정
▣ 8: 세계속의 미국	미국 사회, 정치, 법, 문화, 경제, 제도, 그리고 행동양식을 현대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 그리고 분석적 관점으로 고찰. 미국인이 되는 것의 의미, 미국적 가치의 지속성과 다양성, 미국 내의 서로 다른 집단 및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한	- 미국의 제반 국면들에 대한 검토 - 미국의 이러한 측면들이 세계의 다른 사회와 맺는 관계 예시 - 세계의 맥락 속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들 활용

	견해 다룸. 국제적 틀 속에 위치한 다양하고 다면적인 국가로써 미국을 이해. 미국을 다른 세계 사회와 비교, 시간에 따른 미국 내 변화의 흐름을 비교. 역사적 맥락과, 비교의 관점에서 위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을 시민적 주체로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줌.	

나. 교과목의 내용: 삶의 다양한 주제와 상황

학생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으로 학문을 초대하는 접근방식으로 교과목이 구성하는 경우, 삶의 제반 하위 단위에 대하여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영역을 제시하고 기존의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부터 인간의 융합적이고 실천적인 일상생활세계로 교과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미적 해석적 영역'의 교과목들의 제목을 분석해 보면 '문학', '문화', '예술'과 같은 삶의 영역, '근대' 혹은 '고대'와 같은 시간, 그리고 '미국', '중국' 같은 국가 들을 다루는 빈도가 큰 경향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목의 주제와 내용들을 보면**'경계 없는 시(AE11)'의 경우** 시를 시각적, 언어적, 지리적, 미학적 국경을 필요로 하며 이에 도전하는 문화적 실제로 연구하는데 주요 주제는 번역(국경을 넘는 시), 이민/망명(국경을 넘는 시인), 시와 다른 예술(음악, 영화, 사진, 그리고 역사와 연계된 시), 그리고 유명한 시인들을 다룬다.'**연극, 꿈, 그리고 셰익스피어(AI 28)'에서는** 소설과 현대 이론가와 비평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살펴봄으로써'소설'의 개념, 고대 소망의 재현, 성과 계급 정치, 대중 소설과 종교 소설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토착 한국(AI3535)'교과목은** 한류(Korea Wave)를 통한 한국의 자기표현(self-presentation)과 20세기 현대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문화적 생존의 역사적 사례 연구를 다루고 학술적이면서 미학적인 연구양식을 추구한다.

문화와 신앙의 문제들에 대한 교과목에서도 일상생활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주제들이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짐을 볼 수 있다.'**과거의 현전(CB 15)'에서는** 과거의 물질적 유물과 물리적 흔적이 어떻게 현대 문화의 풍경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며, 어떻게 여러 사회가 "유용한 과거"를 구성하고 이용하는지 탐구하는데 미국, 구소련 붕괴 이후 주변 국가, 유럽, 그리고 식민지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문화 정치(cultural politics), 집단 기억, 박물관, 기념물, 기념비, 기념품, 그리고 기념식의 작용을 이해한다.'**제도적 폭력과 공적 구경거리: 로마의 게임 사(CB 17)'는** 검투사의 대결, 모의 해군 전쟁(mock naval battles) 등 고대 로마 문화의 특징과 로마의 세계에 대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카르타고 전쟁(Punic Wars)부터 기독교 제국까지 600년 동안 공적 오락으로써 제도적 폭력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의 가치, 태도, 그리고 사회 및 정치, 경제적 요인들을 함께 다룬다. '**더 먼 장소로 가는 뒷길: 여행과 탐험에 대한 문학(CB32)**에서는 여행과 탐험에 대한 문학과 지역 경계의 상호작용 알아보며 물리적 여행과 내면의 여행, 고국과 망명, 그리고 모호함과 확실성의 관계들을 고려하게 된다.

수리적 통계적 주제들의 영역 교과목의 예를 보자.'**의미 만들기: 언어, 사고, 논리(EMR11)' 는** 의미와 의사소통 등 인간의 언어 연구에 대해 학제적 접근을 하는데 언어를 자연 알고리즘의 산물로써, 동시에 인간 종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 계산적 도구로써 탐구한다. 인간의 본성과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철학적 문제들을 조망해 줄 논리학과 언어학, 컴퓨터과학의 형식모델을 활용한다. '**우리 주변의 통계: 당신이 행복 혹은 불행할 가능성(EMR 16)**'은 부자나 가난뱅이로 만들고(재정 투자), 사랑받거나 외롭게 만들며(온라인 데이트), 건강하거나 아프게 만들고(의료 실험), 만족하거나 좌절하게 만들며(초콜릿/와인 시음)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통계원리와 추론을 다양하고 학생들이 흥미로와 하는 실제 삶의 상황을 통해 살펴본다.

윤리적 추론의 대표적 교과목으로 '**생명 윤리(ER24)**'가 있다. 기술의 발전과 무한한 욕망의 시대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인간의 미래를 그려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 자유를 해치는 건강, 구조(rescue)를 저해하는 예방(prevention), 우리의 삶이 위기에 쳐했을 때 서로 충돌하는 욕망에 대한 주장들에 관한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우리의 방식을 추론하는데 특히 많은 질병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및 지역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와 전 인류 수준에서 제기되는 건강에 관한 윤리적 문제들을 강조한다.

생명과 자연과학 물리의 세계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영역의 교과목들도 단순 과학 이론과 개념으로부터 삶의 사태를 먼저 설정하고 교과내용을 구성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다윈주의의 이해(SLS12)**'는 다윈 사상과 과학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 탐구한다. 진화이론의 주요 사항의 발전을 고찰하고, 다윈사상이 확고하게 증명된 영역과 다윈 이론을 크게 수정한 추후 발전 영역을 조망하며 다윈 전후 진화사상의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과 사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생명의 분자(SLS11)**'에서는 유전적 특징의 기초를 구성하고, 몸이 어떻게 발달할지 관장하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도록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분자를 다룬다. 우리 몸의 신호, 현대 약물, 그리고 미래 약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분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음악과 소리의 물리학(SPU13)'은** 소리와 음악이 인간 문화의 총체적 부분으로,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소리의 생성, 전달, 지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탐구한다. 진동의 성질과 공명, 간섭, 화음, 불협화음, 악기, 인간 청각 반응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관련된 물리학의 법칙을 고찰한다. 또한 '**생활 속의 물리(SPU15)**' 교과목은 '전기 콘센트, 휴대전화, 전선에는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위험은 무엇일까?',MRI, X-rays, 그리고 CT 촬영시 무엇이 우리 몸에 흐르며 위험하지 않을까?' '식료품점 계산대와 CD 플레이어에 있는 레이저는 무엇일까?' '원자시계와 GPS 위성은 어떻게 배낭여행객과 배를 안내하는 항해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을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은 핵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원자로와 핵폐기물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일상 삶의 물리학에 대한 다양한 수양적 연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한다.'**생명이란 무엇인가? 쿼크부터 의식까지(SPU20)**'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 '생명'을 보고자 한다. 양자 물리학이 불확정성에 관한 이론임에도 DNA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삶에 필수적인 분자의 안정성 설명에 끌어들이고 열역학이론은 불안정성에 대한 이론이지만 우리 생명에 남아있는 질서와 보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활용한다.

인간과 사회와 세계의 문제에 관한 영역은 특히 삶의 주제들이 교과영역으로 들어온 좋은 예를 보여준다.'**집단학살(SW17)'은** 집단학살의 이론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데 스파르타부터 다르푸르(Darfur)에 이르는 집단학살의 역동을 비교하고 대학살 사례를 고찰하며 대학살 예방방법, "최종적 해결(final solutions)"의 기원과 참혹한 영향을 조망한다. 이를 위해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역사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학제적 접

근을 도모한다. '**서구의 지배력: 160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힘의 원천(SW19)**'교과목은 과학혁명에서부터 산업혁명, 민주주의부터 소비자 사회(consumer society), 제국주의부터 국가주의와 사회주의까지, "서구"(유럽과 유럽의 식민지를 의미)의 사상과 제도는 4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는데 그 힘의 원천을 이해하고자한다. 서구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및 군사의 핵심적 차이에 대해서 비교역사학적 접근으로 탐구한다. 삶의 주된 주제인 '미국'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음식: 세계 역사(USW19)**'는 유럽인이 향신료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을 "발견"하게 되는 등 음식이 미국인의 경험의 중심에 놓여 있음에 주목한다. 미국의 음식에서 '미국'이란 무엇인가?' 개개인의 음식 선택과 국가의 식품 정책은 어떻게 미국인의 삶을 더 넓은 세계(다른 인간과의 사회적 삶 및 다른 모든 생명체의 자연세계)로 연결시켰는가? 등을 탐색한다. '**성과 시민(USW26)**'에서는 미국 성립과 성의 문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 그리고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오랫동안 시민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수행해온 역할과 성적 권리가 현대 미국 내 논쟁과 투쟁의 장소로 남아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이나 세계 사회 등을 교과영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와 국가 등 일상 삶의 사태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과 주제들이 매우 중요한 교과내용 구성의 주축 혹은 출발을 위한 기반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삶에서 만나는 사태와 상황들을 주요 강의주제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자유교육을 삶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삶의 맥락으로 학문들을 초대하는 원리로 구성하는 학제적 교과과정 교과목들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한다.

다. 강의방법: 삶의 사태에 대한 도제적 참여활동

하버드 대학의 교양교육위원회는 새로운 교양과정 커리큘럼의 개편과 동시에 교수들로 하여금 기존의 '한계와 경계'를 깨고 넘어서서 '비전통적' 교수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기를 적극 권장하며 학생들의 참여방식에서의 변화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삶과 학문'을 연계시키는 일은 당연히 '창의적인 교수방법'의 시행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 교양 교과목들이 가지는 '감수성(sensibilities)'과 '실재성(realities)'이 변하는 것으로서 교과목은 본질상 유연하고 민첩한 '교과 과정적 실체(curricular entity)'라는 것이다.[22)]

일상 생활세계에서 자유교육적인 활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서 삶과 앎이 만나도록 하고자 시도하는 새 교양교과과정의 강의운영에 대한 독특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A. 현장학습

학제적 교양교육에서 강의실은 '대학교 밖'으로 확장된다. "새 교양교과목은 교수들에게도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보다 많은 현장학습(field trip)을 나가게 한다. 여기에는 해외 체험학습 경험도 포함된다.[23)] 즉, 강의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을 넘어서서 교실 밖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과거의 현전 (Presence of the Past) (문화와 신앙 15)** 강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강의운영방식의

22) 2007 최종보고서 p.9, pp. 19-20
23) "Welcoming Gen Ed" Harvard Gazette Friday 04 2009

좋은 예이다.

> 위대한 박물관으로부터 소박한 집지키는 수호물까지, 모든 문화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된 작품들과 물리적인 표식들로 충만하다. 이러한 사물들은 문화적 유산들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와 소유의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 '과거의 현전'이라는 교과목에서 어떻게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물질적인 사물들을 통하여 ' 사용가능한 과거(usable past)'를 구성해내는지에 대하여 탐색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기념품, 조형물과 박물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역사적인 보존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정치학에 관하여 토론한다. 이들은 또한 현시대의 문화적 명소(cultural landscapes)에 서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동기념물 형성의 사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과 같은 소위 '대단한' 문화의 전통적인 측면으로부터 훨씬 벗어나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버클러교수는 말한다.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정열적인 강한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비판적인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고 서사(이야기)들이 천착될 수 있지요"[24]

외부로 직접 가서 삶의 현장을 강의실화 하는 작업은 동시에 그러한 외부로 간 공간이나 사태에 대하여 '개인적 점유화' 작업을 촉구한다. 즉, 각 학생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일반적인 상황을 개인화해보는 과정을 교과목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 이 강의는 학생 개인화를 도모한다. 즉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물들이 가지는 것에 대한 학제적 조망의 다양한 방식을 경험한 후에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역사적 공간을 창출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한 강의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버클러교수의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사항가운데 하나는 "각 개인의 문화적 명소 "를 개발해 내는 것이다. 모든 학생은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한다-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나 지역 등-그리고는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는 내내 그 장소에 대한 '수업속 전문가(class specialist)'가 된다. 학생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연구물들을 강의웹사이트에 계속하여 업로드함으로써, 물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정치학적이거나 논쟁중인 과거사들에 대하여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나머지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문화 지도(cultural map)'를 창조하게 된다. "나는 내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문화적 명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버클러교수의 말이다. '나는 학생들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지구의 표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하여 흥분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또한 하나의 정합성있는 전체로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명한다.[25]

'현장학습'은 학교 밖으로 강의실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현장을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해당 상황을 각 학생의 개인적 사태로 '점유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유교육과 삶을 연계시키는 것'으로서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능한 삶의 사태의 장면에 학생들을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당연할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강의실을 일상 삶의 장면으로 확장하는 양방향적 노력이 가능하며 학교 밖과 해외 등에서 현장학습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삶의 사태에서 자유교육적 성찰과 참여가 일어나도록 유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교양교육'의 형태로 사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요청되는 능력을

---

24) "A Sampling of classes in new Gen Ed Curriculum " by Amy Lavie, Emily T. Simon, and Steve Bradt. Harvard Gazette. Thursday, April 30, 2009.

25) Ibid.

발달시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B. 활동기반학습

새 교양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강도 높은 연구경험, 대중매체활용 프로젝트, 협동과제수행, 예술 작품 만들기와 같은 '활동기반학습(activity-based learning)'을 하도록 교수방법을 창안해 내기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26] 창의적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많은 교과목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도록 하고, 초청강연자와 보다 더 창조적인 과제를 부과하도록 한다. 숙제는 때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전통적인 페이퍼 보고서를 쓰는 대신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바를 온라인상에 비디오나 팟캐스트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는 것이다. [27]

새 교양교과과정은 기존 대학 강의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혁신적 교수방법을 수용하는 폭이 커졌다. 예를 들면 '문화와 신앙 영역' 강의, 「신의 사랑과 그의 선지자 마호메트를 위하여: 이슬람교(Muslim) 문화의 종교, 문학, 그리고 예술」을 담당한 Asani교수는 "창의적 과제와 학제 간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교양교육(새 General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허용되어진 자유가 없었더라면, 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는 거의 10년에 걸쳐 이 강좌를 고안했지만, 7-8년 전에 그가 이 강좌를 핵심교양에 제안하였을 때 두 번이나 승인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위의 강의는 "Allah"를 아랍어로 쓰고, 이슬람 전통에 포함되어있는 신과 관련되는 하나의 개념을 어떤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서든 표현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학생들은 DNA 나선에서부터 Solo 컵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묘사하기 위해 알라신의 이름의 문자를 사용하는데, 어떤 학생의 경우 알라의 세계를 통해 빛이 투과된다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전구 위에 "알라(Allah)"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모델이나 비디오를 통해 오늘날의 회교사원을 보여주는 공개행사(showcase)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페르시아 및 아랍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랑에 관한 시'나 '서사시' 를 쓰는 것이 주어졌다. 수강생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형성하도록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진술한다.

그 외에의 교과목들도 데쿠파주[28], 가면, 그리고 호머 심슨(Homer Simpson)으로부터 영적 상징까지 다양한 이미지의 콜라주(collage) 를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요리실습을 하기도 하며, 실험해보기, 다큐멘터리와 팟캐스트(podcasts) 만들어보기, 시와 산문 작성해 보기, 다양한 자료들 (이론자료, 음성기록, 시각이미지, 영화, 시 공연(poetry performances)등)의 자료 활용하기, 작품 텍스트에 대한 주의 깊은 읽기와 사려있는 글쓰기, 토론을 통해 강의 자료를 실제 활동과 역할극 시나리오로 연계시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실천적 활동들을 교과목 운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 가운데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과제도 많은데 이는 '학교 밖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강의 내의 상호작용과 매체 활동을 통해 촉진하고 발달시키는 의미가 있다.

---

26) A Curriculum about Connecting: Harvard launches Gen Ed. Oct. 14. 2009

27) "Ged Ed promotes creative classwork" By Julie R. Barzilay, The Harvard Crimson Published: Monday, April 12, 2010
http://www.thecrimson.com/article/2010/4/12/through-program-asani-students/

28)decoupage; 오려낸 종이쪽지를 붙이는 그림 기법

예를 들면 문화와 신앙11 교과목 '동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의술과 신체'는 학생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한 과제를 많이 제시하는데 핵심교양으로부터 새교양교과목으로 전환한 이후 매주 학생들은 페이퍼를 쓰기보다는 영화를 창작하여 제출하거나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하여 팟캐스트(podcasts)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 비디오클립, 그리고 많은 교실내의 상호작용을 한다" 학생들의 말이다.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매체활용과 소통의 측면에서 기술과 토론의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해준다.

활동기반 학습의 프로젝트 성과물들은 많은 경우, 전시 등의 형태로 타인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이는 강의주제 내용과 유관한 공간을 선택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슬람 문화 관련 프로젝트 성과를 'Prince Alwaleed bin Talal' 이슬람 연구프로그램 사무실에 전시하기도 하는것이 그 예이다. 담당교수는 "보통의 경우 학생들이 기말보고서를 쓰면 이를 다른 가족들과 공유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학생이 예술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건 반드시 공유되어야만 하지요."라고 말하면서 활동기반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의 과제를 부모와 가족, 학교 구성원이 모두 공유하는 의미에 대하여 강조한다.

학제적 교양교과과정에서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자이면서 전 교양교육 담당 부학장인 S. Kennen에 의하면 "이러한 직접적 수행 활동(hands-on activities)이 학생들이 수업자료를 더 잘 통합하고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29]

C. 삶과 학문의 순환적 융합 구조 적용

학제적 교양 교과목은 삶에서 출발하여 그에 대한 학문적 담론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의 **'정치적 정의와 정치적 재판 (Political Justice and Political Trials, 윤리적 추론)'** 교과목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

> 수요일 오전 하버드 교정 Sever Hall 강의 학생들은 '누렘베르그 재판(Nuremberg Trials)'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나치의 잔학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C. S. Maier 역사학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죄가 처벌받았고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정도의 이해를 넘어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죄를 부여하는 초점이 유태인을 제거해 버리려 했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시도를 강조하는 것에 두지 않는가? 교수는 대량학살이 그 당시 아직까지 어느 주나 전이적 체제(transitional body)에서도 범죄로 성문화되어있지 않았고 따라서 검사는 당시 기존하던 국제법의 범위체제 내에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간다. 그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이 법률문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를 불문하고 반드시 어떤 종류인가의 행위(action)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그러자 수업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던 것으로부터 갑자기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혹은 반대로 이러한 원리들이 과연 문화적인 맥락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냐 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으로 도약한다. 이러한 순간이 바로 새로운 교양 커리큘럼이 바로 그 교육적 목적, 즉 학부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이후의 자신들의 삶을 형성할 세계에 대하여 사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는

29) 필자는 2008년 2월 하버드 대학을 방문하여 교양교육혁신에 관한 설명을 Stephanie Kennen 부학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2007년 교수들에게 'Gen-Ed'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incentive'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Graduate Semina for General Education'라고 대답했다. 이하 Kennen의 설명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것을 달성하는 순간인 것이다.[30]

삶의 단위에 '학문적 조망'을 끌어들이는 것, 개별 사태에 담긴 보편적 원리를 알도록 하는 것이 새 교양교과과정 교과목의 일차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강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학문적 담론으로부터 또 다시 일상의 사태, 학생이 당면하는 삶의 문제 상황으로 이해와 조망을 또 다시 재적용하는 순환구조를 띠게 된다.

> (강의는) 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하여 프랑스혁명의 여러 사례들과 소비에트의 숙청, 남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사태,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두루 거쳐 진행되어 나간다. 교수는 영어로 되어있는 재판기록들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재판 진행 과정문(transcripts of the proceedings)들을 읽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반적 원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한 위대한 극적인 순간들을 찾아낸다". … 그리고 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우 자극적인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만일 어떤 외국 국가나 전이적인 단체가 조지 부시를 이라크전쟁에 대한 전범으로 보고자 시도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일상의 삶에서 겪는 일들과 상황에 담긴 학문적 성찰과 이론을 불러 일으켜 그에 대한 깊은 학문적 이해와 지식, 접근방법을 형성하게 하고 또 다시 이를 학생의 삶으로 되돌려 적용해 보는 순환구조는 새 교양교과과정의 다양한 여타 교과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학과 요리: 격조 높은 요리로부터 유연한 물체(soft matter)의 과학까지 (물리적 세계의 과학 27)** [31]' 교과목은 물리학과 요리를 함께 융합한 교과목으로서 '학자'와 '요리사'가 함께 강의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 교과목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과 요리' 교과목은 개론적인 수준에서 '유연체(soft matter)의 과학'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게 되는데, 거품(foams)과 와 유상액(emulsions)으로부터 동결화(gelation)와 중합체 용해 (polymer melts)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주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매우 많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도 물리학 교수와 유명한 요리사가 함께 담당한다. 이 강의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 2회로 구성한다. 매 주 첫 수업에서는 우선 물리학 담당교수가 45분간 해당 주차의 과학적 주제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초대받은 요리사가 1시간동안 요리와 강연을 진행한다. 후반 15분은 교수, 학생, 그리고 요리사가 서로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토론과 실연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주 두 번째 수업은 주로 과학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과학 강의와 실험이 매번 포함된다. 매주에 조교가 담당하는 1.5시간의 섹션도 병행된다. 이 섹션에서는 주로 부엌에서 조교가 학생들 한 팀을 이끄는 과학적 실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섹션의 목적은 해당 주의 과학시간에 형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질문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왜 어떤 특정 물질은 유상액을 안정시키는가(vinaigrette 샐러드드레싱을 만들어 보고 그것의 물리학을 설명해 보라) (b)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은 그것이 따뜻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유를 이해해 보라 (c) 캐러맬화(caramelization)의 과학적

---

30) http://harvardmagazine.com/2009/01/educating-students-life?page=0,2 Harvard Magazine 2009년도 1.2월호 에서 발췌

31) http://www.seas.harvard.edu/news-events/press-releases/harvard-general-education-course-brings-together-world-famous-chefs-and-eminent-academics-to-explore-science-and-cooking. 2010년 3월 접속

구조체계(underpinnings)를 이해하라. 학생들 각 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 해답을 준비해야만 한다: 해답은 여러 가지 시도적 실험이 가능한데 글로써도 되고 예술적인 것이나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강의의 차수별 강의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st session: "과학과 요리의 역사적 개관'. 요리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 과학적 관점에서 요리를 설명하는 것에 공헌한 사람들: 가장 위대한 공헌들; 과학을 통하여 요리를 이해하기; 과학적 방법; 새로운 종류의 요리를 개발하고 탐색하는데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기
2차 session: "간단물질들-액체와 고체" 물의 사례: 얼음에서 물로 그리고 수증기로 ; 물체의 상태(state-phase)를 확인하는 측정단위들-압력, 온도, 밀도(composition); 상태의 전환(얼기, 끓기); 온도에너지의 개념; 사례- Pressure 요리하기와 찌기.
3차 session: "요리의 기본적 단위(구성)와 에너지학" 기본적 단위들: 원자로부터 단순분자에서 다시 거대분자들로-폴리머의 개념; 탄수화물과 섬유질에서의 당분; 지방(오일; 포화와 불포화지방); 펩티드와 단백질에서의 아미노산; 효소들
4차 session: "텍스쳐, 점성, 입속에서의 느낌 - 기본 유동학". 액체와 고체의 유동학. 두께가 가지는 의미. 폴리머 유액의 점성. 사례: 밀가루로부터 풀 상태까지 ; 밀가루의 점성; 복합사카라이드가 점성에 미치는 영향 (예-guar gum , Xanthan gum).
5차 session: "요리 시간 - 비평형화 과정". 음식을 통한 열의 이동: 확산, 대류, 방사 (빛의 확산; leiden-frost effect). 급속 vs. 느린 요리. 동역학적 과정이 음식의 텍스쳐에 미치는 영향. 쵸콜렛의 과학. 텍스처에 의미를 가지는 결정체의 크기와 부풀어오른 초코렛,
6차 session: "자기결집구조(Self-assembling structures)" 상호간섭(interfaces) 사례: 우유속의 마이셀, 빵 속의 글루텐단백질의 네트워크.
7차 session: 거품제재와 유화액 - 개론(Foams and emulsions - Introduction): 유화액과 거품제재란 무엇일까; 거칠어짐과 안정성의 개념; 사례: 비네그레트(Vinaigrette) 소스와 마요네즈, 휘핑크림, 머랭(meringue) 같은 일반적인 소스.
8차 session: 교화(膠化, Gelation): 상태 간 변화로써 교화(Gelation). 젤을 만드는 방법: 공유 결합(covalent linkage), 정전기 등. 젤라틴(gelatin)에서 한천(agar)까지; 알긴산(alginate) ; 사례: 치즈; 온젤라틴(war gelatin).
9차 session: 복잡한 상태 변화(Complex Phase changes): 튀기기; 설탕에 졸이기와 메일라아드 반응(Maillard reaction). 산화. 포장.
10차: 거품제재와 유화액 - 발전된 개념: 어떻게 거품제재와 유화액을 안정화시키는가. 유화시키기 (레시틴 Lecithin); 어떻게 달걀 없이 안정화시키는가. 요리용 거품제재; 계면 활성제(surfactants); 사례: 요리용 거품제재("air").
11차: 발효와 미생물에 의한 음식의 변화-어떻게 미생물은 음식의 맛과 구조(질)를 바꾸는가.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가스(gas): 빵, 에멘탈 치즈(Emmenthaler cheese); 젖산: 치즈, 요거트, 피클; 다당류: 나토, 크산탄 검(xanthan gum); 엔자임(enzymes): 나토, 치즈; 와인과 맥주 (이스트)
12차 session: 맛, 냄새, 그리고 질감의 신경생물학(Neurobiology of taste, smell and the feel of textures):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기본적인 맛; 지각: 맛, 질감, 그리고 냄새; 용해성과 휘발성; 맛의 수용기; 사례: 레몬의 감미를 만들어 시큼한 맛을 감지하는 수용기와 관련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라클베리(miracle berries).

위의 교과목의 강의운영은 요리라는 일상의 소재를 불러놓고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과 생활이 만나는 상황에서 요리와 학문적 원리를 모두 이해하도록 하는 양방적 접근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리가 진행되는데 담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요리해보기 과학적 질문던지기 요리로 과학의 원리 알기로 이루어 졌다.

D.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조합

학제적 교과목의 가장 일반적 강의운영 원칙은 동일한 주제와 사태 등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의 병치일 것이다. 생명체계의 과학 영역의 '다원주의의 이해 (UNDERSTANDING DARWINISM) 가 좋은 예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과학과 역사가 이 학제적 교과목 '다윈주의의 이해'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망한다. 이 강의는 역사전공 브라우니교수와 생물학 강사 베리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다위니즘의 역사와 진화생물학을 함께 다룬다. 강의의 학제적 특성상 각각의 체계는 구분되어있다. 교수는 각각 교재들을 독립적으로 가르쳐왔었다. 그러나 이 교과목이 있기 이전에는 이 두 교수는 한 번도 학문적인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위니즘'과 '진화생물학'에 관하여 함께 협력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둘이 함께 하니 보다 큰 그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이야기한다. Browne와 Berry는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지식이 강의의 정합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 Browne은 생물학자로 교육을 받았었으며 Berry는 자연선택에 관하여 이론화를 하여 현대의 Charles Darwin이라고 할 수 있는 Alfred Russel Wallace에 대하여 책을 저술하였다.
> 수업에서 다루는 교재의 학제적 성격 때문에 수업활동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자신들의 DNA을 서열화해보기도 하고 선택적 배양행위를 거친 의도적인 인간진화를 위한 조작적 시도로서의 우생학과 같은 역사적인 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전체 대상 강의도 포함되어 있다. 진화이론은 생물학의 중심부에 놓여있지만 두 교수는, 한 개인이나 인간존재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을 진화에 의하여 비판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을 더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견해 이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많은 과학적 아이디어들과는 달리 진화는 비전공자들에게 특별히 큰 매력을 던지면서 '과학'의 범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를 본 강의가 보여준다.

학제적 교과과정의 강의는 이처럼 단일 대상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다원적이 형태의 학문적 관점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비교, 갈등, 이해, 융합의 노력을 학생들에게 요청한다.

E. 삶에서 요청되는 자유교육적 능력의 발달을 위한 도제적 활동

새 교양교육 교과목에서는 자유교육적 태도를 대학의 이후 혹은 대학의 밖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미리' 대학의 학제적 교양교육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제적 참여의 기제를 활동하게 된다. 교과목 계획서에 나와있는 교수들이 강조하는 능력의 예들,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요청하는 활동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새 교양과정 강의에서 학생에게 촉구하는 활동 능력들 예시
개괄적으로 파악하기(Introduction), 탐색하기(Exploring), Openings(처음 시작하기), 병렬하기(Putting together), 점유하기(Appropriation), 이해하기(Understanding), 해석하기(Interpretation),

연구하기(Studying), 읽기(Reading), 사례 연구하기(Case Studies), 자기 논쟁하기(Self - Debate), 측정하기(Measuring), 분석하기(Analyzing), 의미 만들기(Making Sense), 추론하기(Reasoning), 탐구하기(Inquiry), 비판적으로 접근하기(Critical Approach),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기(Thinking about), 이론과 실제 파악하기(Theory and Practice), 입장 표명하기(Taking Stand), 비교 관점 가지기(Comparative Perspective)

이상의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활동들은 사실상 '자유교육'의 유용성을 주장하며 '삶과 연계되는 자유교육'의 의의를 강조할 때 함양할 능력, 혹은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요청되는 활동사항들이 함께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교 관점 가지기', '입장표명하기', '이론과 실제 파악하기' 등은 삶의 사태에서 자유교육적 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요청되는 능력의 대표적 경우이며, '연구하기', '점유하기' 등은 이러한 능력이 발전되도록 강의실 안에서 혹은 현장실습에서 학생이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처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새 교양교과과정의 수업들은 이러한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능력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청활동능력들의 조합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형성하고자 하는 종국의 능력은 '자유교육적 능력의 무한 확산 연계를 위한 능력'의 다름 아니다. 결국 '자유교육을 연계하는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적 지식을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적에 대한 하버드의 최근 혁신에서 생략된 부분을 읽어 내는 옳은 방법이다. 이처럼 삶의 맥락에서 자유교육적 태도를 적용하는 것을 도제적 활동으로 배우는 것은 '사태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 최선의 참조체제 적용하기', '학문적 해석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기', '다양한 관점 병치하기', '상호간의 차이점 비교하기',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세계적 틀에 대하여 비판하기', '적절한 가치기준 적용하여 판단하기', '해당 세계적 능력을 통해 실천적으로 참여하기',' 여러 세계적 관점과 틀을 서로 융합하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해석과 실천의 틀 창조하기', '융합적 삶의 사태 개선하기' 등과 같이 '삶에 대한 자유교육적 참여 능력'을 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교육을 삶에 연계하는 교양교과과정의 교과목들은 일상의 사태에서 겪게 되는 주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이들에서 취해야 하고 필요로 하는 자유교육적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제적 교육활동(apprenticeship)' 혹은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의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F. 통합적 학생평가

새 교양교과과정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방식도 변화한다. 과거 핵심교양에서는 모든 강좌가 기말 시험을 쳐야했지만, 새 교양교과과정에서 교수가 창의적으로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32] 그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구두시험(oral exam)'이다. 예를 들면 '미학적 해석적 이해' 영역의 교과목 "빅토리아 시대 문학과 문화에 나타난 죄와 공포(Crime and Horror in Victorian Literature and Culture)"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전하기 위하여 학기말 시험에서 '글쓰기' 형식의 시험이 아니라 교수진과 '면대면' 구두시험을 친다. 이는 하버드 교양교육의 평가방식으로 참으로 '비통상적인' 기말고사의 형식

32) Gen Ed Identity still Emerging The Harvard Crimson 2010. 4. 20

이다. 구두시험을 위하여 먼저 학생들은 교과목의 담당교수와 강의조교들과의 토론을 거쳐 '참고읽기 자료목록(a list of supplementary readings)' 가운데서 하나의 텍스트를 선정해서 이를 공부하고 답하도록 한다. 교과목 담당 M. B. Kaiser 교수는 구두시험은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고유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그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말시험의 구두시험형식을 택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지적인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 즉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ability to engage in scholarly dialogue)'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지나치게 적게 읽거나 강의에 정기적으로 단지 출석만 한 정도를 가지고는 학생들은 강력한 대화를 창출해 낼 능력이 없게 됩니다[33)]

하버드에서는 그동안 사회와 역사연구, 문학 등의 '전공'에서는 이미 학사학위 취득 조건으로 '구두시험'을 포함시켜 왔었다. 교양과정 교과목에서 구두시험을 도입한데는 한편으로는 학부학생들의 소통능력을 단순히 전통적으로 쓰기에 초점을 맞추어오던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대학 전체의 움직임과 맥이 닿아있고[34)] 다른 한편으로는 새 교양과정 교과목의 승인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인 교수방법을 발견하고 적용하라는 대학의 동기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제적이고 다원적인 삶에서의 자유교육의 적용을 염두에 두는 교과목들은 단일 학문적 지식과 결과에 대한 지필식 시험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실제사태에서 활용되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새 교양교과과정 운영과 지원

1) 교과목 개발

하버드의 새교양교과과정으로의 전환은 혁신적인 것으로서 1970년 후반 핵심교양 중심 교양교육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전체적인 학부교육의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교과목이 필요한데 핵심교양 교과목이 300여개 이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그 이상의 교과목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다음과 같은 제 경로를 통해 매 학기 점진적으로 개발, 전환, 승인되고 있다.

(a) 교양교과목개발을 위한 대학원생 세미나

새로운 교양교과목은 '교양교과목을 위한 대학원생 세미나(Graduate Seminars in General Education, GSAS)'를 통해 집중 개발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에게 있어서도 대학교 학부 교과목의 개발은 매우 지난한 작업인데 하버드 문리학부 대학원의 학생들이 학부 교과과정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35)] 새교양교과과정 개발에 관심 있는 교수들은 교양교

33) http://www.thecrimson.com/article/2010/4/5/gen-ed-offers-oral-exam/

34)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의 소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학과에서는 'public speaking'을 학부교육에서 보다 중요한 핵심적 역량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졸업생들이 '왜 나에게 인터뷰 기술이나 능력들을 진작 학교 다닐 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겪기도 하면서 절실해 졌다.

과목 개발에 관한 중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대학원 세미나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세미나가 개발하려는 교양교과목이 어떻게 새 교양교과과정의 영역별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세미나에서 그것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야 한다. 세미나 개설 계획서는 '대학원 위원회'와 '교양교과과정'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위원회는 교수들이 학부강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도하기 위해 협업한다.

대학원생들이 새 교양교과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발하는 대학원생 세미나에서 토론, 개발, 기획에 참여한다. 대학원생들은 핵심 개념과 분석적 주제들, 코스 디자인과 교수방법, 강의운영 실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한다. 세미나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은 강의담당교수와 연락을 취하여 상세한 정보를 듣고, 소속한 대학원 학과에는 해당 교과목 이수가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학점에 적절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이나 학부생들이 담당교수에게 허락을 받으면 수강할 수 있다.

GSAS를 수강하는 대학원생들은 교수들과 학부 교과과정을 위해 '혁신적인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밀접히 작업을 함께 한다. 하버드 대학원 학생들은 읽기과제나 수업교재, 실험실 활동, 그리고 교수기술 등 교양교과목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다. 현재 교과목개발로 연결중인 대학원 세미나들은 근대형성에 있어 아시아, 시민전쟁, 미국의 음식, 국제인권, 확률, 동물연구, 그리고 윤리학과 미학 등의 주제들을 다루는데 까지가 있다. 교과목 개발을 위한 별도의 기금의 지원으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 36)

이상의 교과목들은 대학원과정의 세미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새교양교과목으로 승인을 받으면 실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행된다. 개발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은 해당 교과목의 조교(Teaching Fellow)로 우선 배정, 참여하게 된다. 대학원생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교수들과 공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장래 교양교과목을 수강하게 될 학생들의 입장도 헤아리는 차원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준다. 새로운 교양교육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하버드대학의 부학장 S. Kennen에 의하면 이러한 개발방법은 새로운 교양교과목의 개발에 매우 의미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이러한 과정을 매우 즐기고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도 교수들이 교과목개발에 참여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

35) Harvard Gazette. Thursday, April 30, 2009.

36) 새 교양과과정 개발을 위한 대학원 세미나의 예는 다음과 같다.1)

○ East Asian Studies 240. Arts of Asia - (New Course)
○ English 293. 철학, 정신치료, 그리고 문학 세미나 Philosophy, Psychiatry and Literature: Seminar
○ 독일어 German 246. 무신론의 윤리학: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프로이드 The Ethics of Atheism: Marx, Nietzsche, Freud
○ 역사학 History 2403. 세계사에 관한 하버드 수집품 Harvard Collections in World History
○ 인간진화생물학 Human Evolutionary Biology 2311. 진화의학 세미나 Evolutionary Medicine Seminar
○ 언어학 Linguistics 290. 기독교적 언어와 그 화자들 Heritage Languages and Their Speakers - (New Course)
○ 중세연구 Medieval Studies 290. 중세만들기
○ 철학 Philosophy 291. 철학, 정신치료, 그리고 문학: 세미나 Philosophy, Psychiatry and Literature: Seminar
○ 사회학 Sociology 229. 비교 기관들과 불평등: 동아시아 Comparative Institutions and Inequality: East Asia
○ 통계학 Statistics 305. 통계적 오류와 역설: 만화 안내 Statistical Fallacies and Paradoxes: A Cartoon Guide

(b) 시범교과목의 운영

Harvard의 Gen Ed 커리큘럼의 개발과정에서 '시범강의'를 운영했다. 종합적인 'Harvard College Curricular Review'를 거쳐 이어지는 조처로 2007년 5월에 처음 FAS로부터 승인받았다. 첫 Gen Ed 교과목은 2008년 가을학기에 제공되었다. [37]

(c) 핵심교양 교과목의 전환

하버드는 새로운 새 교양교육을 위하여 약 260개의 새교양교과과정 교과목을 개발하여 인준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 가운데 많은 교과목은 'Core Course'와 명칭이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교양교과목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양교육 교과목 원리'에 따라 '혁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교양교과과정의 교과목들은 비록 명칭이 있어도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ay Harris 하버드 학부교수는 "비록 교과목명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버드 교양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교수는 반드시 1) 평가방법을 새롭게 재고할 것 2) 교수방법을 다시 고려해 볼 것 3)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반영하여 심의신청을 하고, 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d) 전문대학원 분야와 교수의 참여

하버드의 새교양교과과정에는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s)' 소속의 전공분야와 교수가 교과목 개발에 참여한다. 이는 '삶'의 다원적 실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다. 예를 들면 최근 하버드 학부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에서 오직 '학부생' 만을 위한 강의 '세계 속의 미국 영역'에서 "입장 택하기: 미국 K-12 교육에서 평등과 수월성의 딜레마(Taking a Stand: Dilemmas of Equity and Excellence in American K-12 Education)"가 개설되기도 했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전문대학원의 전공과 교수가 '참여'하더라도 '전문적인 문제'를 학부에서 다루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특정한 '직업인'을 양성하거나 직업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정보, 통찰과 계몽, 능력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입장인 것이다.

---

37)2008-09 년도 처음 시범운영된 Gen Ed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Aesthetic and Interpretive Understanding: Poetry without Borders, Putting Modernism Together/ Culture and Belief: Medicine and the Body in East Asia and in Europe, For the Love of God and His Prophet: Religion, Literature, and the Arts in Muslim Cultures, Institutional Violence and Public Spectacle-The Case of the Roman Games/Ethical Reasoning: Human Rights-A Philosophical Introduction/ Science of Living Systems: Molecules of Life, Understanding Darwinism/ Societies of the World: Germany in the World, 1600-2000

38) Harvard Crimson 2011년 10월 4일자 "Ed School Offers Gen Ed Course"

2) 새 교양과정 이수 방법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것이 새교양교과과정을 분배필수방식으로 이수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 총 8과목, 32학점을 이수하도록 된다. 구체적인 이수규정과 핵심교양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교양과정의 8개의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 핵심교양의 경우 총 11개의 영역 가운데 전공과 유관한 '전공과 유관한' 영역은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새교양과정은 학문별 전공영역이 아닌 기준으로 영역분할 및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의 학생이어도 면제되는 영역이 없다. 하나의 교과목이 half course로서 대부분 1개 학기에 끝나는 교과목이다. half course는 과목당 약 4학점인 경우로서 전체 학사학위 이수기준 10.5 full course 인 점을 감안하면 21개 한학기형 교과목 가운데 8개의 교과목, 학점으로는 약 128 학점 가운데 32학점을 새교양교과과정의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즉,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4이 새교양교과과정으로 충족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39)]

둘째, 8개 영역이나 교과목은 '학문'영역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제는 특정 학문 혹은 학과와 일대일의 직접적 대응관계가 없다. 따라서 모든 학과의 교수들이 모든 영역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전체 교과목 가운데 한 과목은 반드시 '역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core에 있던 '역사연구' 영역이 새교과과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련의 보완적 조치이다.

넷째, 모든 새교양과정의 성적은 급락평가(Pass/Fail) 방식이 아닌 등급평가(letter grade)로 받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등급평가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급락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등급이나 급락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선택제(option)'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새교양과정을 교양필수 8개 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목을 등급평가로 택해서 이수해야 한다.

다섯째, 새교양과정 교과목은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team teaching으로 학제적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여 가르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의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섯째, 학생들이 새교양과정 교과목의 필수이수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공 필수중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목 가운데 어떤 것은 교양필수로 인정하고 중복 이수 학점으로 산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일곱째, 새교양교과과정은 졸업 시까지 8개 교과목을 아무 때나 이수하면 된다. 핵심교양의 경우, 1학년까지는 3개 과목 이상, 2학년까지는 00개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핵심교양이 전공을 정하기 이전 저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을 강력히 권한 것과 달리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씩 전공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과 병행하여, 일반선택을 통하여 다른 과목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더하는 것과 함께 시숙하여 졸업을 향해 사회와 대학 밖을 맞을 준비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여덟째. 기존의 핵심교양 교과과정 체제로부터 새교양과정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2009년도 신입생부터는 모두 새교양교과과정의 이수규정을 적용받는다. 2009년도 이전에 입학한 3학년 4학년 학생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기존 핵심교양

39) 우리나라에서 '교양'이라고 불리는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하버드에서는 새교양교과과정 교과목 외에도 전공이외 필수이수과목으로 글쓰기 , 제2외국어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교양과목 이수 비율은 약 1/3이 된다.

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새교양교과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핵심교양 이수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택한 경우는 새교양교과과정을 letter grade로 이수하면 core curriculum의 이수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새교양교과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숙고한 이후 기숙사 학장과 상의하고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40]

3) 교양과정 담당기구와 교과목 지원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교수방법을 강의에 적용하도록 돕는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교양교과과정 담당 행정실은 1년간 교과목명칭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핵심교양사무실과 새교양사무실을 합하거나 체제를 전환하는 일체의 물류적 흐름을 관장하는 것도 했으나, 이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들은 더 '비가시적인 목적'의 실현 즉-비전통적인 교수방법 (비전통적인 배움의 방법)의 구현과 지원 즉,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수업활동(artistic and creative coursework)'을 전적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이루어진 Gen Ed를 위한 행정지원의 예이다.

○ '물리과학 20:생명이란 쿼크부터 의식까지' 교과목의 경우 mitosis 비디오부터 빅뱅모델까지 개발하여 쇼케이스 개최-행사지원

○ 문화와 신앙 12 신의사랑과 예언 교과목의 전시회- 학생들은 모델 모스크와 알라의 이름의 문자그림적 묘사(calligraphic depiction)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전시

○ 물리과학 12 '자연재앙'교과목에서는 교양교육행정실에서 재정지원. 교과목 담당교수나 procepters가 scratch 로부터 hands-on labs 을 설계해 줌. 화산, landslides , 토네이도의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하여. 이는 Gen Ed 교과목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자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일종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임.

○ 경험수학적추론 16 삶의 통계학. 담당교수 Xiao-Li Meng은 통계학이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세계들과 유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옴. 법이나 romance 등. 올해는 Ged Ed가 모든 초청강연자의 비용을 지불함. 강연내용을 publicized 하여 극적으로 모든 event의 turnout이 증가하도록 함.

○ 교과목활동으로 'American Repertory Theater performances나 screen musical을 보려가는 것 지원. 파키스탄 rock musician Slman Ahmad 를 강의실로 초대하는 것도 지원함.

이 외에도 새교양교육 담당 행정실에서 기획하는 지원으로 **'Versus 시리즈'**가 있다. 이는 두 명의 교수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다. 첫 토론은 L.Menand 영문학 교수와 S. Pinker 심리학 교수의 토론인데, '자유교육에서 종교의 위상에 대하여'가 그 주제이다. 다른 패널 토론도 구상하고 있는데 8명의 서로 다른 영역 소속 교수들이 나와서 만일 이들이 '야구'에 대하여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서로 다른 학

40) 2011년의 경우 4학년 학생이 새교양과정으로 전환하여 이수하는 비율이 학기시작하면서 10%에서 20%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4학년의 56%가 새교양과정으로 전환하였다(Harvard Crimson, 2012. 3. 2 일자 기사)

문적 렌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새 교양 교과과정의 성공의 관건은 '학생들에게 이전의 핵심교양과 다른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추구하는 '새교양교과과정의 목적'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그것 간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한다. 학생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양교과목계획위원회(The General Education Planning Committee)'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학생자문단(student advisory group)'의 성격을 가지는 기구로서 한 학기에 두 번 정례적 회의를 한다. 여기서는 주로 새 교양과정 교과목을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이벤트가 가장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인지 제안하도록 하여 학교의 지원에 활용한다. S. Kennen 부학장은 "학교의 행정적 관건은 새 교양과정의 새로운 측면을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새 교양교과목의 새 부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옮겨놓고 변화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이다". 현재로는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양사무국이 학생들의 관점을 경청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가능한 한 교과목 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생평가와 성적부여 체계

하버드 문리과대학(Faculty of Arts and Sciences)의 학부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등급평가와 급락평가 및 기타평가를 적용한다. 성적등급에는 A, A-, B+, B, B-, C+, C, C-, D+, D, D-, 그리고 E가 있다. "E"는 "낙제"를 의미하며 학위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급락평가에는 PA/FL, SAT/UNS, CR/NCR이 포함된다. "PA"(Pass)는 A~D-의 성적등급을 의미하며, "FL"(Fail)은 성적등급 E를 의미한다. "SAT"(Satisfactory)는 성적등급 A~C-를 의미하며, "UNS"(Unsatisfactory)는 성적등급 C-이하를 의미하고 이는 낙제성적이다. "CR"(Credit)은 교차등록(Cross-Registration Course)에만 적용되며, 성적등급 A~D-를 의미한다. "NCR"(No Credit)은 성적등급 E에 해당한다. 급락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의 수강에는 제한이 있는데, 하버드대학의 급락(Pass/Fail, SAT/UNS, CR/NCR) 학점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핵심교과목 (The Core Curriculum), 일반교양교과목 (General Education), 글쓰기과목 (Writing), 외국어과목 (Foreign Language), 전공교과목 중 성적등급(A~F) 학점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급락평가(Pass/Fail, SAT/UNS)로 수강할 수 없다.
2. 통상적으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은 한 학기에 최소 3교과목을 등급(A~F)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3. 신입생 세미나는 급락(SAT/UNS)으로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학기에 1학년 학생은 신입생 세미나이외에 다른 강좌를 급락(SAT/UNS)으로 수강할 수 없다.
4.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총 16교과목(2학기 연속강의 기준)중 10.5강좌를 C-이상의 성적등급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5. (1)항과 (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한 급락(Pass/Fail)으로 수강하는 강좌 수나 학점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해당강좌의 담당교수로부터 급락(Pass/Fail) 학점으로 수강하기 위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강카드를 제출하고 학기 시작 후 5주차 월요일까지 급락(Pass/Fail) 학점수강을 등급 학점수강으로, 등급 학점수강을 급락(Pass/Fail) 학점수강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시점 이후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6. 자율연구(Independent Study)교과목은 급락(Pass/Fail) 학점으로 수강할 수 있다. 4개의 자율연구교과목을 급락(Pass/Fail) 학점으로 수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가을학기와 봄 학기, 2학기 연속강좌의 경우, 가을학기(1학기)의 학점을 급락(Pass/Fail)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가을학기시작 후 5주차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봄학기(2학기)의 학점도 봄 학기 시작 후 5주차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급락(Pass/Fail) 학점 신청은 모든 경우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 “ABS”는 중간시험 혹은 기말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부여되는 낙제성적으로, 이후 추가시험이 허락된 경우에 한해 학점 변경이 가능하다. "EXT"(Extension)는 강좌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기간 최종일까지 강좌관련 수업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이후에는 행정위원회만이 기간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EXLD”(Excluded)는 낙제성적을 의미하며 이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그 학기의 학생 성적기록이 “낙제(Unsatisfactory)”라는 것을 의미한다.